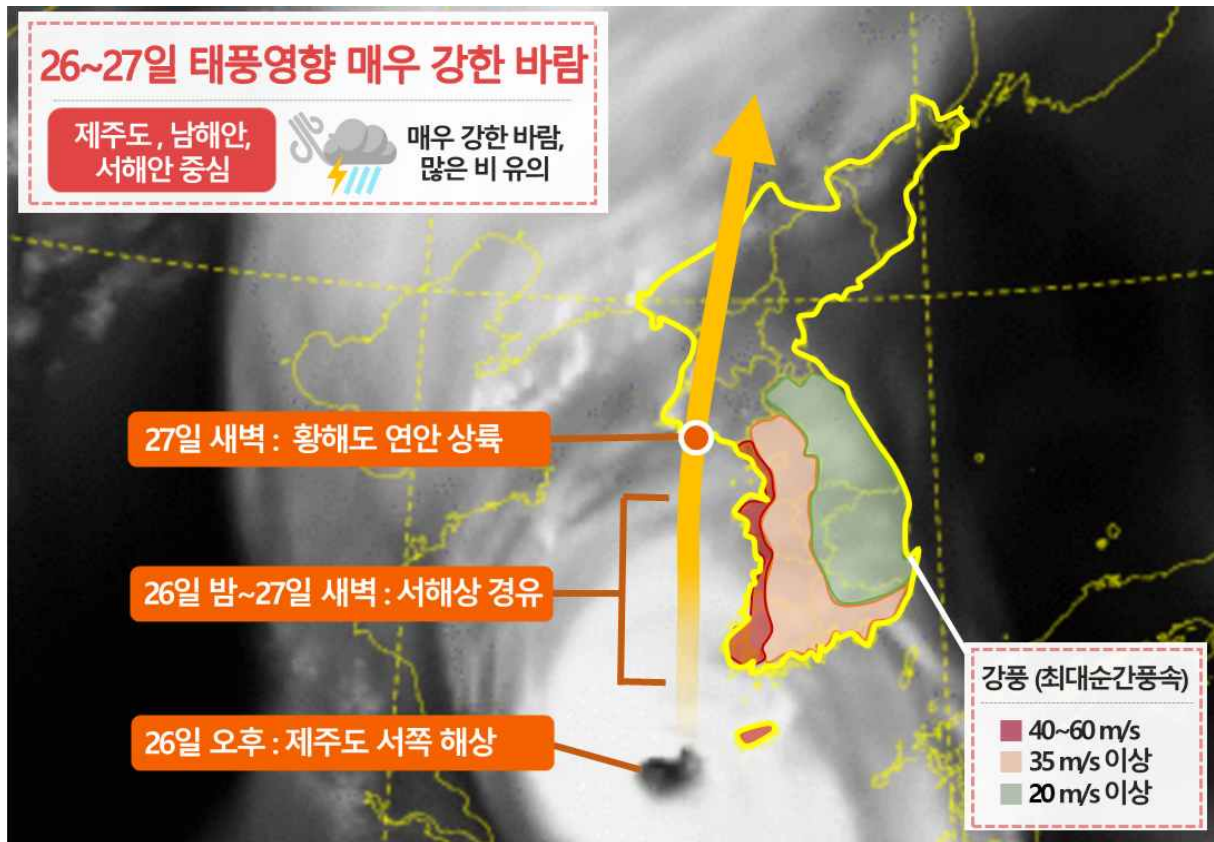


배포일시	2020. 8. 25.(화) 16:00 (총 8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예보국 예보분석팀	담당자	팀장 박철홍 주무관 우진규
		전화번호	02-2181-0606

26~27일 태풍 영향, 매우 강한 바람 주의

- ‘매우 강한’ 강도로 서해상 통과하여 위험반원에 들게 되므로 피해 대비 철저 필요!
- 제주도서쪽 지역·남해안 중심 매우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초속 60m)
- 남·서해상 중심 10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 해안가 폭풍해일 유의
- 전라도·제주도·지리산 부근 최대 300mm(제주도 산지 500mm 이상) 매우 많은 비



[26~27일의 태풍 예상경로와 지역별 예상 풍속]

[태풍 현황과 전망]

- (현황) 제8호 태풍 ‘바비(BAVI)¹⁾’는 25일(화) 15시,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습니다.
 - 중심기압은 955hPa, 강풍반경은 약 370km, 최대풍속은 시속 144km(초속 40m)의 강한 강도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 (예상진로) 26일(수) 오후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26일 밤~27일(목) 새벽에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겠으며, 27일 새벽(5~6시)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예상 강도)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진입 시 30℃ 안팎의 고수온 해역(평년 대비 약 1~2℃ 높음)을 지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중심기압 940hPa 안팎의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하겠습니다.
 - 이후, 점차 해수온도가 낮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강도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나, 상륙 직전까지도 여전히 강한 세력(예상 중심기압 960hPa 이하)을 유지하겠습니다.

1) 제8호 태풍 ‘바비(BAVI)’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산맥의 이름임.

[강풍 전망]

- 26~27일 태풍이 서해안으로부터 약 50~100km 떨어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풍의 우측인 위험반원²⁾에 위치하겠고, 이 기간에 태풍의 강풍반경이 420km 안팎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장 가까운 제주도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 제주도는 25일 밤~27일 새벽에, 서해안은 26~27일에 최대순간풍속 시속 144~216km(초속 40~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그 밖의 서쪽 지역(서울·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과 경상남도에서는 26~27일에 최대순간풍속 시속 126km(초속 3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풍력발전기, 첩탑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강풍에 날리는 파손 물에 의한 2차 피해, 낙과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나 높은 산지에 설치된 규모가 큰 다리와 도서 지역은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2) 위험반원 : 태풍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태풍 중심의 오른쪽 반원을 말하며, 태풍순환에 의한 바람과 태풍진행에 의한 바람이 합쳐져 비바람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

[풍랑과 폭풍해일 전망]

- (풍랑 전망) 현재 제주도전해상과 서해남부해상, 남해상은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높아지면서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며, 25일 밤부터 서해중부해상에서도 물결이 높아질 것입니다. 위 해상을 중심으로 27일까지 최고 10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 동해상에서도 26~27일에 최고 5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사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기 바라며,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 (폭풍해일 전망) 25~27일 태풍이 940~970hPa의 낮은 중심 기압을 유지함에 따라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제주도, 전남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만조 시각까지 겹치는 시간에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크겠으니, 해안도로 및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강수 전망]

- (강수 전망)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26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2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는 26일 오후~27일로 예상됩니다.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제주도와 전라도, 지리산 부근은 최대 300mm(제주도 산지 50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경북 서부내륙은 최대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 특히, 최근 많은 비로 인한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 다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습침수구역에서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강수량(25~27일)

- 전라도, 제주도, 지리산 부근: 100~300mm(많은 곳 제주도 산지 500mm 이상)
- 경남 남해안, (26일부터) 경북 서부내륙, 서해5도: 50~150mm
- (26일부터)그 밖의 전국: 30~100mm

- [첨부] 1. 태풍의 영향으로 가장 강하게 관측된 바람 순위(1959~2019년)
2. 태풍의 영향으로 가장 낮게 관측된 해면 기압 순위(1959~2019년)
3.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순위(1959~2018년)

첨부 1 태풍의 영향으로 가장 강하게 관측된 바람 순위(1959~2019년)

□ 일 최대풍속

순위	태풍 번호	태풍 이름	영향 시작일	영향 마지막일	최대풍속(m/s)		
					위치	일	속도
1	0314	매미/MAEMI	2003.09.12.	2003.09.13.	185 고산	2003.09.12.	51.1
2	1618	차바/CHABA	2016.10.04.	2016.10.05.	185 고산	2016.10.05.	49.0
3	0012	쁘라삐룬 /PRAPIROON	2000.08.31.	2000.09.01.	169 흑산도	2000.08.31.	47.4
4	0215	루사/RUSA	2002.08.30.	2002.09.01.	185 고산	2002.08.31.	43.7
5	0711	나리/NARI	2007.09.15.	2007.09.17.	185 고산	2007.09.16.	43.0
6	1913	링링/LINGLING	2019.09.06.	2019.09.07.	169 흑산도	2019.09.07	42.1
7	6110	헬렌/HELEN	1961.08.02.	1961.08.04.	115 울릉도	1961.08.04.	36.7
8	1215	볼라벤/BOLA VEN	2012.08.26.	2012.08.29.	170 완도	2012.08.28.	36.3
9	5914	사라/SARAH	1959.09.15.	1959.09.18.	168 여수	1959.09.17.	35.5
10	1007	곤파스/KOMPASU	2010.09.01.	2010.09.02.	169 흑산도	2010.09.01.	35.5

□ 일 최대순간풍속

순위	태풍 번호	태풍 이름	영향 시작일	영향 마지막일	최대순간풍속(m/s)		
					위치	일	속도
1	0314	매미/MAEMI	2003.09.12.	2003.09.13.	184 제주	2003.09.12.	60.0
2	0012	쁘라삐룬/PRAPIROON	2000.08.31.	2000.09.01.	169 흑산도	2000.08.31.	58.3
3	0215	루사/RUSA	2002.08.30.	2002.09.01.	185 고산	2002.08.31.	56.7
4	1618	차바/CHABA	2016.10.04.	2016.10.05.	185 고산	2016.10.05.	56.5
5	1913	링링/LINGLING	2019.09.06.	2019.09.07.	169 흑산도	2019.09.07	54.4
6	0711	나리/NARI	2007.09.15.	2007.09.17.	185 고산	2007.09.16.	52.0
7	1215	볼라벤/BOLA VEN	2012.08.26.	2012.08.29.	170 완도	2012.08.28.	51.8
8	9219	테드/TED	1992.09.22.	1992.09.26.	115 울릉도	1992.09.25.	51.0
9	8613	베라/VERA	1986.08.27.	1986.08.29.	130 울진	1986.08.28.	49.0
10	0514	나비/NABI	2005.09.06.	2005.09.07.	115 울릉도	2005.09.07.	47.3

※ 기상대 관측소 (ASOS, 종관기상관측장비) 자료 기준임

※ 파란색은 제8호 태풍 '바비'와 유사한 경로를 가진 과거 태풍을 표시

첨부 2 태풍의 영향으로 가장 낮게 관측된 해면기압 순위(1959~2019년)

□ 최저해면기압

순위	태풍 번호	태풍 이름	영향 시작일	영향 마지막일	최저해면기압(hPa)		
1	5914	사라/SARAH	1959.09.15.	1959.09.18.	159 부산	1959.09.17.	951.5
2	0314	매미/MAEMI	2003.09.12.	2003.09.13.	162 통영	2003.09.12.	954.0
3	0014	사오마이/SAOMAI	2000.09.12.	2000.09.16.	162 통영	2000.09.16.	959.6
4	8705	셀마/HELMA	1987.07.15.	1987.07.16.	189 서귀포	1987.07.15.	961.5
5	8712	다이너/DINAH	1987.08.30.	1987.08.31.	159 부산	1987.08.31.	961.7
6	1215	볼라벤/BOLA VEN	2012.08.26.	2012.08.29.	169 흑산도	2012.08.28.	961.9
7	0215	루사/RUSA	2002.08.30.	2002.09.01.	188 성산	2002.08.31.	962.6
8	0711	나리/NARI	2007.09.15.	2007.09.17.	187 성산	2007.09.16.	963.4
9	1618	차바/CHABA	2016.10.04.	2016.10.05.	188 성산	2016.10.05.	964.3
10	1216	산바/SANBA	2012.09.16.	2012.09.18.	295 남해	2012.09.17.	964.6

※ 파란색은 제8호 태풍 '바비'와 유사한 경로를 가진 과거 태풍을 표시

첨부 3 태풍 피해 순위 (1959~2018년)

□ 태풍 피해 순위(인명)

순위	발생일	태풍명	사망·실종(명)
1위	1959.09.15~09.18	사라(SARAH)	849
2위	1972.08.18~08.20	베티(BETTY)	550
3위	1987.07.15~07.16	셀마(HELMA)	345
4위	2002.08.30~09.01	루사(RUSA)	246

□ 태풍 피해 순위(재산)

순위	발생일	태풍명	재산피해액(억 원)
1위	2002.08.30~09.01	루사(RUSA)	51,479
2위	2003.09.12~09.13	매미(MAEMI)	42,225
3위	2006.07.09~07.29	에위니아(EWINIAR)	18,344
4위	1999.07.23~08.04	올가(OLGA)	10,490
5위	2012.08.25~08.30	볼라벤(BOLAVEN) & 덴빈(TEMBIN)	6,365
6위	1995.08.19~08.30	재니스(JANIS)	4,563
7위	1987.07.15~07.16	셀마(HELMA)	3,913
8위	2012.09.15~09.17	산바(SANBA)	3,657
9위	1998.09.29~10.01	예니(YANNI)	2,749
10위	2000.08.23~09.01	쁘라삐룬(PRAPIROON)	2,521

※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2018 재해연보, p345)를 이용했으며, 재산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임. (2019년 재해연보가 아직 발간되지 않아 2018년까지의 통계만 있음)

※ 1995년 태풍 재니스(JANIS), 1996년 에위니아(EWINIAR), 1999년 태풍 올가(OLGA), 2000년 태풍 뿌라삐룬(PRAPIROON)의 피해액은 호우와 태풍의 중복 피해액임.

※ 2012년 볼라벤(BOLAVEN)과 덴빈(TEMBIN)은 연이어 발생하여 피해액이 중복되었음.

※ 재산피해의 경우, 1987년 태풍 '셀마(HELMA)'를 빼고는 모두 1990년대 이후에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태풍이 6개로 조사되어 최근의 급격한 도시팽창 및 각종 산업시설의 단지화와 유수지 등의 상대적 감소로 유출량의 증가 등에 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풍백서 2011)